

Vol.22

2014 Autumn

<http://www.em21c.com>

희망 심천



EM **심천**
Empowerment Society



안양천에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며...

희망실천

2014 Vol. 22. Autumn

발행일 2014년 10월 1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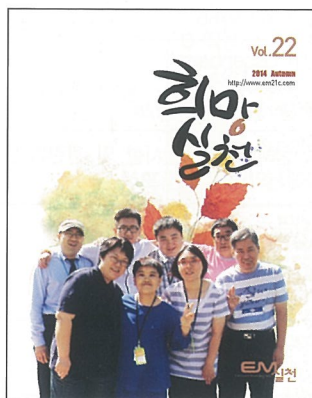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릉테크노타운 6차 1004호, 1002호

전 화 02-875-9744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편집디자인 · 인쇄 EM실천



표지설명

EM실천 우편발송사업부 이용장애인이
가을호 표지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I 희망실천

- 04 여는글 : 2014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직원 독일 해외연수
- 08 우수프로그램 2 : 위풍당당 리더자 탄생 프로젝트
- 10 EM실천 동아리 활동 거불링, 노래동아리)
- 12 추석맞이 송편빚기 대회
- 14 종사자 입사/퇴사 보고
- 16 2014년 하계사회복지·직업재활 현장실습 '괜찮아 시작이야'
- 20 '일하는행복' 현수막사업부 곡철 주임의 작업일지
- 22 솜씨자랑 '특급칭찬이야'
- 24 EM실천·서울시복지재단 자매결연 협약
금천구 사회적경제연대 종사자대회
- 26 2014년 상반기 사업평가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
- 28 사회적기업 전문경영권설립 워크샵 '무한도전 EM실천'
- 30 2014년 EM실천 만족도 조사
 - 고객편
 - 이용장애이편
 - 보호자편

II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소식

- 44 2014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New 프로젝트
- 46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3분기 소식
 - 2014년 직원 독일 해외연수
 - 2014년 하반기 정기이사회
- 48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3분기 소식

III EM실천 NEWS

- 50 NEWS
- 52 작은 나눔을 통한 희망실천(자원봉사자모집, 후원, 3분기 고객명단)



2014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Iserlohner Werkstätten

- 일 정 : 7월 4일~12일(7박 9일)
- 참여자 : 대표이사 이용표 외 산하시설 9명의 시설장
- 목 적 : 복지선진국 독일의 정신장애인 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꿈꿔야 할 정신장애인 마을 공동체 모델 탐색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상

■ 독일직업재활시설 Iserlohner Werkstätten(이절로너 작업장) 소개

구 분	내 용
기관명	Iserlohner Werkstätte(이절로너 작업장)
주 소	Industrie- und Buroservice Geisestraße 35 58636 Iserlohn Postfach 1702 58587 Iserlohn
연락처	Fon 02371 9766
담당자(면담자)	Martin Ossenberg Andreas Schattner Elke Schwarz-Kockoth
방문목적	독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관련법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적용방안 모색
제공인력현황	○ 33명 - 대인 서비스 직원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25명 - 구매, 홍보, 예산담당 직원 8명
주요이용자현황	○ 220여 명 - 장애인 근로자, 실업급여II 수급자
기관특징 및 운영방침	○ 작업장법에 의해 설치 ○ 장애인이 소속된 연금보험기관과 실업급여II 수급자가 소속된 고용센터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용자 모집 ○ 누구든지 일할 수 있으나 자해,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입사 제한

Germany



한국지재단 직원 독일해외 연수 rWerkstätten 견학 보고서

글_조은세상 원장 박정식

입고

제조

배송

- 수동 리프트를 이용 물품 입고
- 전동지게차를 이용 창고로 물품 운반
- 창고에 입고된 물품 체크리스트 사용 검사
- 직원들이 물품 재검사
- 물류 창고로 운반
- 물품 재고 수량 파악
- : 장애인, 비장애인 직원들이 공동으로 작업
- : 검사 과정을 철저히 하여 물품 부족분 및 오류분을 항상 파악하고 있음

- 작업장으로 물품 이동
- 생산품목 리스트에 따른 작업물품 분배
- 조립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상세히 기록
- 샘플 작업 예시를 보여주고 업무 지시
- 팀장이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체크리스트에 기록
- 작업 완료 후 검사 : 작업 공정을 잊더라도 매뉴얼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끔 상세히 기술
- : 입고와 마찬가지로 검사 과정을 철저히 재고 파악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음

- 완제품을 배송창고로 이동
- 화물차로 배송

구 분	내 용
재정현황 등	○ 초기 설립재원은 중앙정부 혹은 주에서 보조 ○ 직원 급여는 지역협회(LWL)에서 지급 ○ 급여지출, 장비구입, 환경개선, 마케팅 등의 운영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관공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 ○ 순수익의 70% 임금지급, 30% 선투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직무 및 작업 공정 - 대기업으로부터 하청 받은 기중기 조립 생산 - 작업 공정을 판넬에 제작하여 부착 따라 하기 쉽게 함 - 6개월 간 직무 훈련 - 최대 2년 간 훈련 가능 - 훈련 후 직무 배치 - 당일 컨디션에 따른 직무 배치 - 팀장 1명이 15명의 근로자를 관리 · 감독 - 매일 아침 미팅(조회) - 미팅 시간 건강상태 확인 후 직무배치 - 직무 단위가 정해져 있어 직무 단위에 따른 직무 수행





6
+
7



기대효과 및 제언(사업 및 프로그램 관련 제안하고 싶은 점)

독일은 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의 연계고용 실적이 매출액의 5%로 기업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조립 라인을 설치하여 납품 받는 형태로 실적을 달성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종사자 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생산·판로개척·판매의 많은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는 한편, 안정적 생산과 동시에 근로장애인 급여 지급 및 상승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고용 제도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초기비용 및 공간확보, 임대료,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근로장애인 인건비, 운영비 등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독일 식의 모델 도입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생산 수익은 시설이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과 시설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소감

총평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사회 시스템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해주고 존엄하게 해준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예측이 가능한 사회,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사회가 진정으로 잘 사는 나라인 것이다. 물론 법인 연수동안 군데군데 게르만 우월주의가 드러나는 하였어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주도하는 모습을 꿈꾸어 본다.

연수를 통해 얻은 점, 좋았던 점

독일 베델의 집 방문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설립 초기의 의미와 취지들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웠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지만 공동체 지향의 시설의 집합소, 지역과의 융화보다는 너무나 독립적인 지역 안의 지역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음다. 이제는 사회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델이 사회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지금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 설립자들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도 들었다. 그렇다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한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인뿐만이 아니라 산하 시설도 함께 한울이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꾸준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법인의 이념과 철학이 일선 실무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단순히 법인의 이념과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체화하여 법인의 지향점에 대해 다 같이 열의를 가지고 함께 해야한다.

향후 추진 사항

독일 직업재활시설 직원들과 한·독 장애인 서비스 관련 법인의 우호 증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의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한국에 초대해서 2015년 5월경에 합의하였다.

향후 해외연수 희망 사항

공동체 모형의 형태를 띤 기관의 설명과 함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수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두드림 장애인성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위풍당당 리더자 탄생 프로젝트

이용장애인들의 성공한 리더자 만들기

글_운영지원실 팀장 양현모, 권장윤

『2014년 두드림 장애인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화·다원화·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장애인성인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EM실천에서는 이용장애인들의 리더십 향상을 통해 직장 내 리더자로 성장시키고, 역량확대 및 자존감 향상으로 권익을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풍당당 리더자 탄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5월부터 8월까지 13회기 구성으로 약 4개월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07명의 리더십을 회기별로 진행하여 성공한 리더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위풍당당리더십 프로젝트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나와 동료들 안에 있는 탁월함을 발견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기



강아지 똥 스토리를 토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남이 붙여준 꼬리표가 아닌 흔들림 없는 자기정체성 세우기



리더로서의 삶의 태도로 감사하기, 받아들이기, 칭찬하기, 개선하고 성장하기



긍정적·부정적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매사에 용기내기



행동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적 삶과 대응하는 리더십 기르기



경청의 의미 이해 몸으로 하는 경청 말로 하는 경청 마음으로 하는 경청법을 배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 기르기

7. 대화의 리더십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고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는 방법 배우기

8. 도전과 협력의 리더십



삶의 현장에서 도전과 창의, 실행
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전과제
조형물 만들기

9. 비전의 리더십



현재의 모습, 미래의 꿈, 장애요소 발견
해결점 찾기 등을 통해 내가 이룰 수 있는
꿈과 동료들의 꿈에 공감하고 격려하기

10. 격려의 리더십



미래의 나의 모습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서로를 인정해주는 마음을
통해 관계자수 향상시키기

“ 인간은 보통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선을 그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언가 삶의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리더’라고 부른다. 남들 다 하는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은 모두 ‘리더’**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기준자체를 지워나가기 때문이다. ”

위풍당당 가슴을 펴고 다시 시작하자



글_인쇄사업실 주임 신영권

EM실천에서 일한지도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간다. 그리고 주임이란 직책을 달고 일한지도 한 2년 정도 된 것 같다. 그 동안 나는 얼마나 훌륭한, 아니 좋은 리더였을까.

이번 10회기 동안의 ‘위풍당당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나는 리더로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리더란 단순히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배려하며 포용해야 하는, 차원 높은 자존감과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프로그램 내내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다. 너무나 많은 소중한 배움과 경험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잊지 않고 항상 실천하겠다는 강사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마음을 닫고, 내 주장만 펼치고, 짜증과 신경질 내는 외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사뭇 조심스러워진다. 프로그램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 귀한 존재이고, 삶과 생활 자체가 감사해야 할 일이며,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함께 성공하고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을 배우고 체험했건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지 퍼뜩 정신이 든다.

자, 이제는 새로 시작할 때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할 때다. 나 자신이 진정한 리더로 변화하여 거듭날 때 조직도 새 생명을 꽃 피우고, 우리 EM실천이 더욱 발전하지 않겠는가. 위풍당당 가슴을 펴고 다시 시작하자. 모두가 자기 삶의 리더이고 주역이 되어 EM실천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자.

- 한 달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신 황 현호 강사님,
김 민영 강사님과 EM실천 사회복지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글_사업지원팀 팀장 권장윤

볼링동아리 ‘굴리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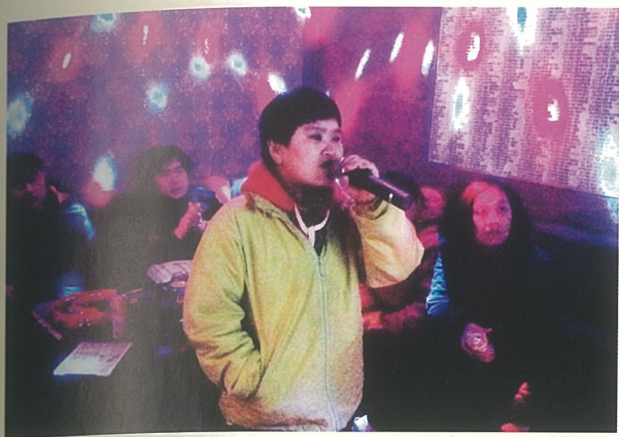
한 달 동안의 스트레스를 모아서 볼링공과 함께 시원하게 볼링핀을 넘기면서 스트레스 팍~팍~ 푸는 볼링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볼링동아리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동아리로 인해 함께하는 동아리 회원 7명의 참석률은 당연 동아리 중에 최고! 또한 볼링동아리는 동아리 프로그램 중에서 장수하는 프로그램에 속한다. 그래서 항상 2주 전부터 볼링을 칠 생각에 회원들의 들떠 서로 볼링동아리 일정과 조편성에 대한 대화가 잦아져 주위에서 볼링동아리 진행일정을 다 알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볼링동아리의 인기가 어느 정도 인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회원중심의 동아리 운영을 위해 담당자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격월로 담당자가 참여하고, 동아리 임원진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과하

고, 회원들의 동아리에 대한 애착과 관심 및 흥미가 높아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동아리에 대한 자랑은 그만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동안 묵은 스트레스를 날리려 가볼까~ 들뜬 마음에 볼링장에 들어서고, 자신에게 맞는 볼링공을 선택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하는 조편성! 그리고 독특하게 흡연자, 비흡연자로 조편성! 사~~~~작~ 항상 첫 주자는 김학수 씨~ 항상 한 달 동안 스트레스가 많은지 볼링공을 아주 힘껏 굴린다. 옆 레인에서 쳐다볼 정도로... 그리고 늘 변함없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는 볼링동아리 회장님 홍민성씨 그리고 2인자인 장진호씨 항상 늘 두분이 상위권을 유지한다. 그리고 볼링동아리의 미인 2분인 박진희씨, 김정희씨 늘 다른 회원들과의 점수 경쟁보다 두분만의 점수 경쟁을 한다. 이런 다양한 재미와 한 달 동안에 묵은 스트레스를 볼링공과 볼링핀이 넘어지면서 생기는 경쾌한 소리 매력에 빠지는 볼링동아리가 늘 기다려진다.





노래 부르며 즐기는 동아리

singing together

글_사업지원팀 대리 박수현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BM실천 식구들을 위해 금년도 신설된
따끈따끈한 노래동아리입니다. 한 달에 한번 노래방에서의 친목을 다지
는 멤버들(가끔 음악공연도 관람하러 간답니다)

노래동아리의 마스코트 임영호님,

노래동아리의 발라드가수 손선애님,

199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게 하는 명부선님,

'우리~~~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만남이 18번 애창곡인 차금주님,

박자감각 제로의 김재우님(노래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시종일관 진지한 흥정가님, 수줍 수줍 박진희님(수줍어하시다가 불링동아
리로 옮기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이들은 직무를 마치고 노래방으로 떠납니다!

혹시 노래방에 가셨다가 옆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BM실천의 노래동아리 멤버일지도 모릅니다^^

미친 듯이 신나게 놀고 있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우린 일상에서 벗어나 즐기는 중이니까요!!

다함께 노래불러요
singing together ♪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직무, 일상스트레스를 노래로

해소하는 이들의 모임



추석맞이 송편 빚기대회



글_사업지원팀 김기호

12
+
13

더운 여름과 함께 1년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서 9월이 되었다. 9월이 되면 항상 기다리게 되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매년 추석이 가까워지면 가족, 친척들과의 만남, 맛있는 명절 음식, 오래간만에 나들이, 긴 연휴 등 설레는 단어들이 떠오른다. EM실천도 이러한 추석을 맞아 이용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명절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9월 1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명절 프로그램. 운이 없게도 외부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나르느라 계획한 대로 한 번에 진행하지 못 했지만, 송편도 직접 빚어서 만들고, 다과와 상품을 걸고 명절놀이와 보드게임 등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박미선사무국장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만들어준 뽕쌀반죽을 나누어 가지고 직접

송편을 빚고 찌보았고, 직접 찐 송편을 사이 좋게 나누어 먹었다. 처음 만들어보거나 오래간만에 만들어서 여기저기 터지거나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요즘 직접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 사먹는 것에 익숙해진 환경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어보는 것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송편을 찌면서 남은 시간에 이용장애인들이 직접 애호박전과 고기전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작업물품을 수령하게 되며 시간이 부족하여 이용장애인들이 송편을 빚고 찌는 동안, 종사자들이 전을 부쳐서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하여 이용장애인들이 직접 전을 부치지는 못 했으나, 이용장애인과 종사자들이 서로 송편과 전을 나누어먹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언제나 바쁜 첫째 주의 일정을 마친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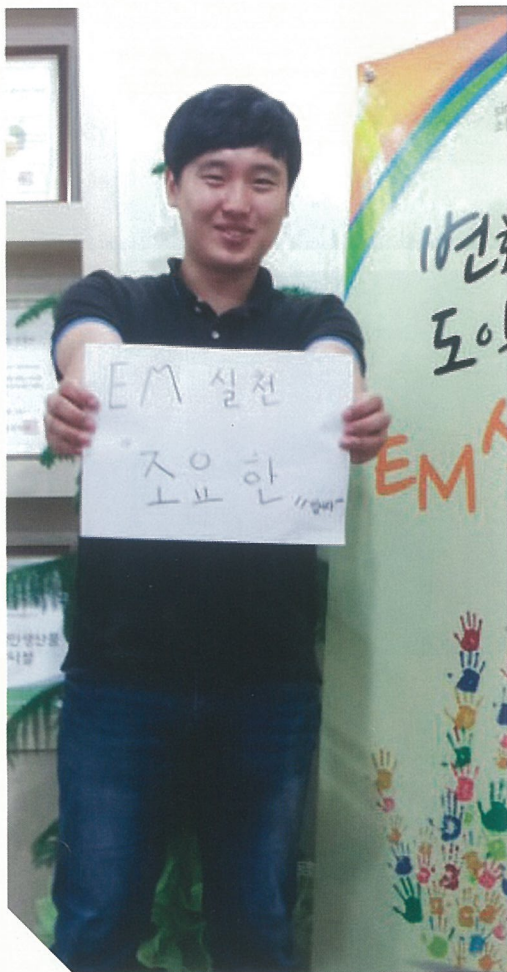
일찍 작업을 마무리하고 3시부터 명절맞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4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였고, 활동 간에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등수를 나누어 상품도 걸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간식을 통해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기차기, 보드게임, 초성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추석을 맞이한 전통놀이와 현대적인 놀이를 함께 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재미를 느끼지 못 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였으나, 팀 활동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소한 상품들을 걸어서인지 모두 즐겁게 참여하였던 것 같다.

레크레이션을 모두 마치고 등수에 따라 추석선물세트로 된 상품을 나누어주었고, 서로가 사이좋게 선물을 나누어가지며 명절연휴를 즐겁게 보내라고 덕담과 인사를 나누며 귀가하였다. 시대가 변화감에 따라 명절이 되어도 음식이나 놀이를 하는 일이 점차 사라져가는 때에 명절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먹고 놀이를 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명절이 되면 EM실천의 이용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14
+
15

EM • 2014 Autumn Vol.22

글_사업지원팀 조요한

안녕하세요, 조요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불어 나의 달란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람을 얻게 되며, 일을 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어 고립되지 않고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EM실천에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익사업에서도 성과를 높이고 함께 일하는 회원분들과도 더욱 친밀하게 자謙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시나브로 :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성장한 나 발견하기

EM실천에 소속되기 전에 2년의 시간동안 전혀 다른 분야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제품 배송을 위한 포장, 매장관리, 고객응대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해본 일이기에 많이 서툴고 부족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지만, 몸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아 실수투성이였습니다. 이런 내 모습에 실망하여 참 많이도 좌절하고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나니, 제가 할 줄 아는 일들이 점점 많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런 저의 능력은 곧 자신감이 되어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도전을 하게 된 EM실천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왜인지 EM실천의 한 획을 긋는 어마무시한 위업을(?) 달성할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다양한 목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보다 생동감 넘치는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EM실천에서 얼마나 많이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M실천을 이끄시는 김영환 원장님을 비롯하여 박미선 사무국장님, 사업지원팀의 권장운 팀장님과 박수현 대리님, 그리고 김기호 선생님, 운영지원팀 및 디자인실과 인쇄·복사팀, DM발송지원팀까지, 30명이 넘는 EM실천의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업사
번 일터
많은 것
아직 눈
나이가
서러거
EM실천

움을
하는
던 것
무심
을 할
나라
몸경
소집
니다.
마쳤
회원
위해

글_디자인팀 이효진

신입사원 이효진입니다. 책 만드는 일을 한지도 벌써 7년이 넘어갑니다. 같은 일을 하며 여러 번 일터가 바뀌고, 이렇게 저는 지금 EM 실천에 와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것이 생경합니다. 출근길도 어색하고, 사무실도 낯설고, 상사 선배 동료들의 얼굴도 아직 눈에 완전히 익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 한다고 하죠. 저는 새로움이 좋습니다. 나이 들기 싫거든요. 서걱거리는 생경함을 두근거리는 기대감과 신선한 새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앞으로 EM실천에서 생활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 됩니다. 식구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_사회복무요원 신준호



안녕하세요? EM실천에서 사회복무 2년을 마친 신준호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해외 생활 중에 급작스럽게 들어와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 어찌다 보니 무사히 병역을 마치게 되어 함께 도

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처음 EM실천이 하는 곳을 왔을 때 따로 공지 받은 것이 없어서 한울센터에서 헤매던 것이 생각나네요. 어찌어찌 연락을 하여 임성수 팀장님을 따라 사무실에 와서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솔직히 어떤 일을 할까라는 궁금증보다 앞으로 남은 1년1개월을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는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분들과의 프로그램 활동, 여름캠프, 대공원 나들이 등등 많은 일들을 함께하면서 처음에 오로지 소집해제일만 생각했던 것은 잊은 채 2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집해제 당일에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병역을 다 끝마쳤다는 게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온 회원 분들과 직원 분들과도 마지막이 라는 것이 마치 처음 병역을 위해 한국에 돌아왔을 때처럼 어리둥절하네요. 늦게 복무를 하게 된 것을 위로해주시며 많이 챙겨주셨던 김영환원장님과 지금은 퇴사하시고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임성수팀장님, 임성수팀장님이 가시고 사회복무요원을 맡아 고생 많이 하신 박미선 국장님과 양현도 팀장님, 일 년 동안 저를 담당하며 신경 많이 써주신 이진숙 실장님,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 아쉽기 만한 강정식 선생님 김지현 대리님 박경아 대리님……. 끝내 많이 친해지지 못한 동갑 정동숙 선생님, 지금은 자리에 안계시지만 나를 저에게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기윤경 대리님, 진득히 열심히 맡은 일을 하시는……. 솔직히 잘 모르는 박수현, 고미나 대리님과 알고지낸지 얼마 안 된 김기호 선생님과 저의 소집해제 날에 가까울 때 입사하신 이효진 선생님과 조요한 선생님 까지 모두들 EM실천에서 원하시는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직 6개월의 복무기간이 남은 껍박주 사회복무요원도 남은 기간 건강히 복무 마치고 이제 막 들어온 송승현 사회복무요원은 어린 나이에 만큼 앞으로 EM실천에서 많은 것을 배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2년간의 복무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주신 EM실천 식구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장애인 분들과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저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니다. 복무 기간이 아직 남은 사회복무요원 여러분들도 무사히 복무 마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EM실천 직원 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처음 EM실천이 하는 곳을 왔을 때 따로 공지 받은 것이 없어서 한울센터에서 헤매던 것이 생각나네요. 어찌어찌 연락을 하여 임성수 팀장님을 따라 사무실에 와서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솔직히 어떤 일을 할까라는 궁금증보다 앞으로 남은 1년1개월을 어떻게 버텨야 하느냐는 걱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원 분들과의 프로그램 활동, 여름캠프, 대공원 나들이 등등 많은 일들을 함께하면서 처음에 오로지 소집해제일만 생각했던 것은 잊은 채 2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집해제 당일에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병역을 다 끝마쳤다는 게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온 회원 분들과 직원 분들과도 마지막이 라는 것이 마치 처음 병역을 위해 한국에 돌아왔을 때처럼 어리둥절하네요. 늦게 복무를 하게 된



16
+
17

2014년 하계 사회복지·직업재활 현장실습

관람마 시작미야

글_우석대학교 재활학과 실습생 정지원

길고도 짧은 4주간의 실습이 끝났다.
이렇게 실습이 끝나고 후기를 작성하고 있는 이 시간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만들어본 체조를 시작으로 이
용장애인분들과 같이 웃으며 아침을 깨우고, 작업이
많은 날에는 같이 도와드리며 힘들지만 서로에게 힘
이 되어 작업을 완성하였던 날들을 다시금 생각해본
다. 기관방문도 하고, 장애인일자리취업박람회도 참관
하면서 실습기간동안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

을 가지기도 많이 하였다.
이렇게 나는 예비직업재활사로써 준비가 되어있는지
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현장에 나가기
전 준비하는 마음가짐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든 실습생들!! 나와 같은 사업지원팀으로
같이 작업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던 이슬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만형 호진쌤!! 막내이면서 우리 실습생들의 분위기메
이커 경애쌤!! 실습기간동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

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실습생들에게 정말 고맙고 잊지 못할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실습기간동안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언제나 저희 곁에서 지켜봐주시고, 저희의 장점을 이끌어내 과제를 내주신 박미선 사무국장님!! 저희의 문서작업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많은 서류작업의 도움을 주신 문서작업의 신 양현모 팀장님!! 저희에게 많은 사업지원팀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박수현 대리님!! 또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저의 슈퍼바이저 권장윤 팀장님!! 이 밖에도 모두들 저희에게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아! 같이 고만을 나누어 해결방안을 찾아본 재우씨!! 꼭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할게요!! 이렇게 4주간의 실습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많은 조언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잊지 못할 4주를 만들어주셔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모두들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 또한 열심히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_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이 슬

학기를 마치고 동시에 실습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실습을 마친지도 오래되어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면 서둘러 돌아와 과제를 하던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역시나 한 달이라는 시간은 무척 빠르게 지나간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차 실습지를 직업재활시설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업재활시설 중 특히 당사자주의를 내세우는 EM실천에 큰 매력을 느꼈기에 EM실천으로 오게 되었지요. **실습 내내 실습일지나 평가서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EM실천에서 당사자주의를 확실히 익히고 갑니다.** 사회복지자를 행함에 있어 스스로의 미션이 기도 했던 당사자주의.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싶기도 하였

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자가 선택하고 말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했으며, 그들의 회의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고, 사회복지사와 이용자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스스로의 미션이 당사자주의라고 하여 현장에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관이 추구하는 바와 제 미션이 같았기에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EM실천에 오기 전에는 정신장애는 그다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정신건강론을 이수한 것이 전부이며, 간혹 정신보건수련을 받는 선배들의 소식을 듣는 수준이었지요. 그만큼 실습 초반에는 이

용자를 대하는 것 자체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습에서 교육과 이용자와의 만남, 개별과제 등을 통해 정신장애의 종류와 발병원인 및 시기, 특징 등을 익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영역이든 이용자를 개별화의 원칙을 따라 단순히 정신장애인을 넘어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발달장애에 국한하여 관심을 가졌다면, EM 실천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신장애에도 눈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은 마지막 학기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를 수강하기도 하였지요. 정신보건사회복지를 먼저 이수하고 실습에 참가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늦게나마 실습지에서의 경험을 발판삼아 정신장애를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실습을 하며 배운 점은 정말 많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지만 소식지에 모

든 내용을 실지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점은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던 분야에서 실습을 하였기에 더욱 진로에 대한 고민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저 일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인지 모르지요. 앞으로 많은 고민과 진동을 통해 성장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걱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M실천에서의 실습은 진심으로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얻어갑니다. 제 실습지도자였던 박수현 대리님을 비롯한 권장윤 팀장님, 양현모 팀장님, 박미선 국장님! 모두 바쁘신 와중에 꼼꼼히 실습지도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함께 했던 실습생 동료들에게서도 개개인의 역량에서 배울 점이 많았고 서로가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관계에서 좋았어요. EM실천 사랑해요♥**

18
+
19



글_서울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실습생 홍경애

처음 EM실천에서 실습을 하게 된 계기는 교수님의 추천이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도 없었고, 그렇기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을 딛고 시작한 EM실천에서 한 달간의 복지실습은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얼마나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용자분들과 DM작업을 하며 느낄 수 있었다. 이용자들은 내가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해주시

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알아보고 칭찬해주시는 다정함을 가지고 계셨다. 때론 엄마처럼, 언니처럼 삶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둘째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었다. 말로만 들던 워커의 업무를 현장에서 겪어보니, 들던 것보다 더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EM실천은 장애인직업재활시

설로 영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복지사가 더 많은 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기에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와의 상담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힘들고, 소진이 올만한 상황에도 비전과 목표를 잃지 않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회복지 일에 대한 가치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셋째로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부분을 채워갈 수 있었다.

실습 이전엔 사회복지사로서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없었던 정도로 백지상태였다고 느꼈는데, EM실천에서 실습하는 기간 동안 가장 변화된 부분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알게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서 작성부분이 얼마나 미비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외에

도 상담기술, 성실성 등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며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 더 많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

끝으로 EM실천의 복지실습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지만, 변화된 내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삶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용자와의 추억과, 실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일에 있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EM실천 시작이야

글_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생 이호진

EM실천에서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분야였습니다. 그만큼 생소했지만 시혜자로서만 여겨지던 장애인이 스스로 일을 통해서 자립해나간다는 점에서 직업재활에 매력을 느꼈고, EM실천에서 실습을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란 대상층도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EM실천의 이용자 대부분이 정신장애인이기에, 평소 장애인을 접해본 경험이 없었던 제게 이용자를 대하는 것이 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며 정신장애인의 성향이나 특징을 알아가고, 동시에 개개인의 특성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DM 발송 업무를 함께 하면서 이용자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비롯한 색안경을 벗으면, 때로는 이용자들의 직업적 능력이 비장애인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사실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이 중반으로 가면서 직업재활훈련 뿐만 아니라 사회응용훈련이나 일상생활훈련 등을 참관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지만, EM실천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신장애인의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회적기업, 공문서 작성, 프로포절 작성, 사례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나마 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및 서비스, 문서작성과 같은 행정업무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습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분야가 보다 적성에 맞는지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생들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처리능력, 이론적 지식, 정책적 환경, 법적 제도 등을 공부해야 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나 대외활동을 통한 현장에서의 경험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 달이라는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된 실습이었습니다.

일하는 행복

현수막사업부 광철주임의 작업일지

AM 8:30

아침에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가난다지역출발지역을 지나 10분거리 내에 있는 EM실천으로 출근을 한다. 출근카드로 출석체크를 해야 출근이 인정되므로 사원증은 필수!

AM 9:00

출근하자마자 장비 점검을 하고, 현수막빌 정리정돈 후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AM 9:10

장비점검 후 간단하게 아침체조를 통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연다.

AM 9:10

현수막빌 작업진행사항을 현수막빌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진행한다.

AM 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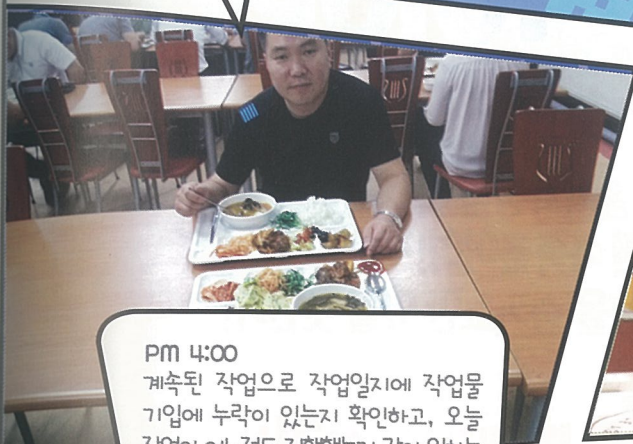
끝같은 오전 쉬는 시간. 이 시간 만큼은 가장 기쁘게 지내는 시간이다. 휴게실에서 동료와 함께 얘기를 하며 쉬는 시간을 만끽한다.

20
+
21

AM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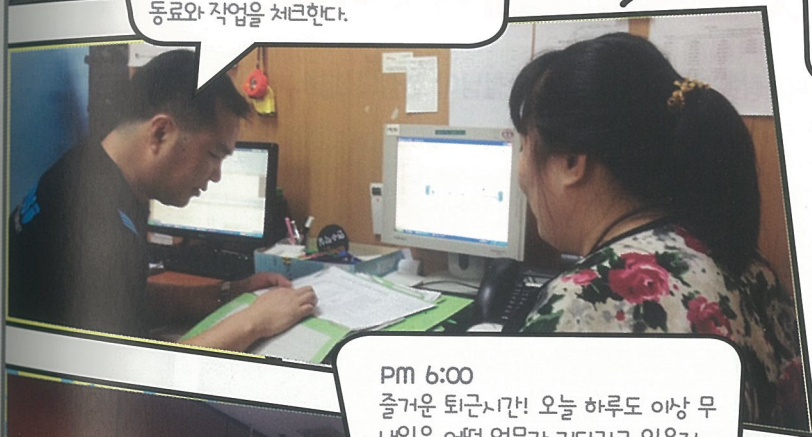
맛있는 점심시간! 오늘 점심반찬은 무
침하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일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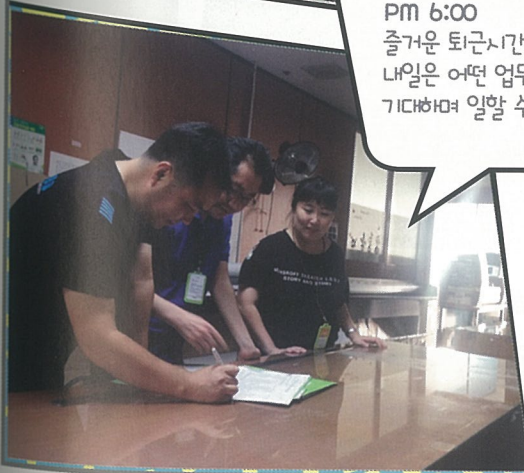
PM 4:00

계속된 작업으로 작업일지에 작업물
기입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작업이 어느정도 진행했는지 같이 알하는
동료와 작업을 체크한다.



PM 6:00

즐거워 퇴근시간! 오늘 하루도 이상 무
내일은 어떤 업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일할 수 있는 하루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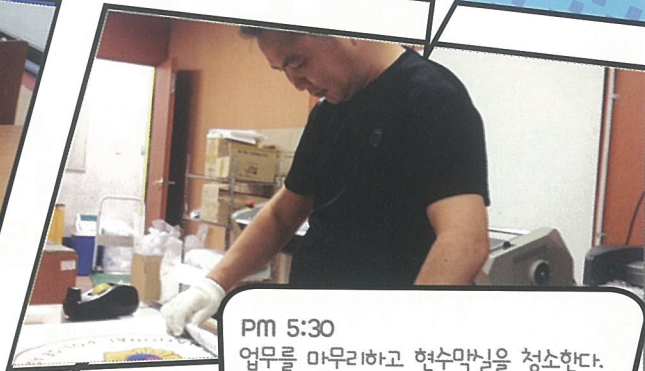


PM 1:00

오후에도 현수막 업무는 계속 진행중..

오늘은 현수막 작업물이 많은 관계로
속도를 내며 진행한다.

납품시간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PM 5:30

업무를 마무리하고 현수막실을 청소한다.
청소가 끝난 후 담당자와 안전점검표를
체크하며 하루를 마무리 한다.



숨씨자랑 '특급칭찬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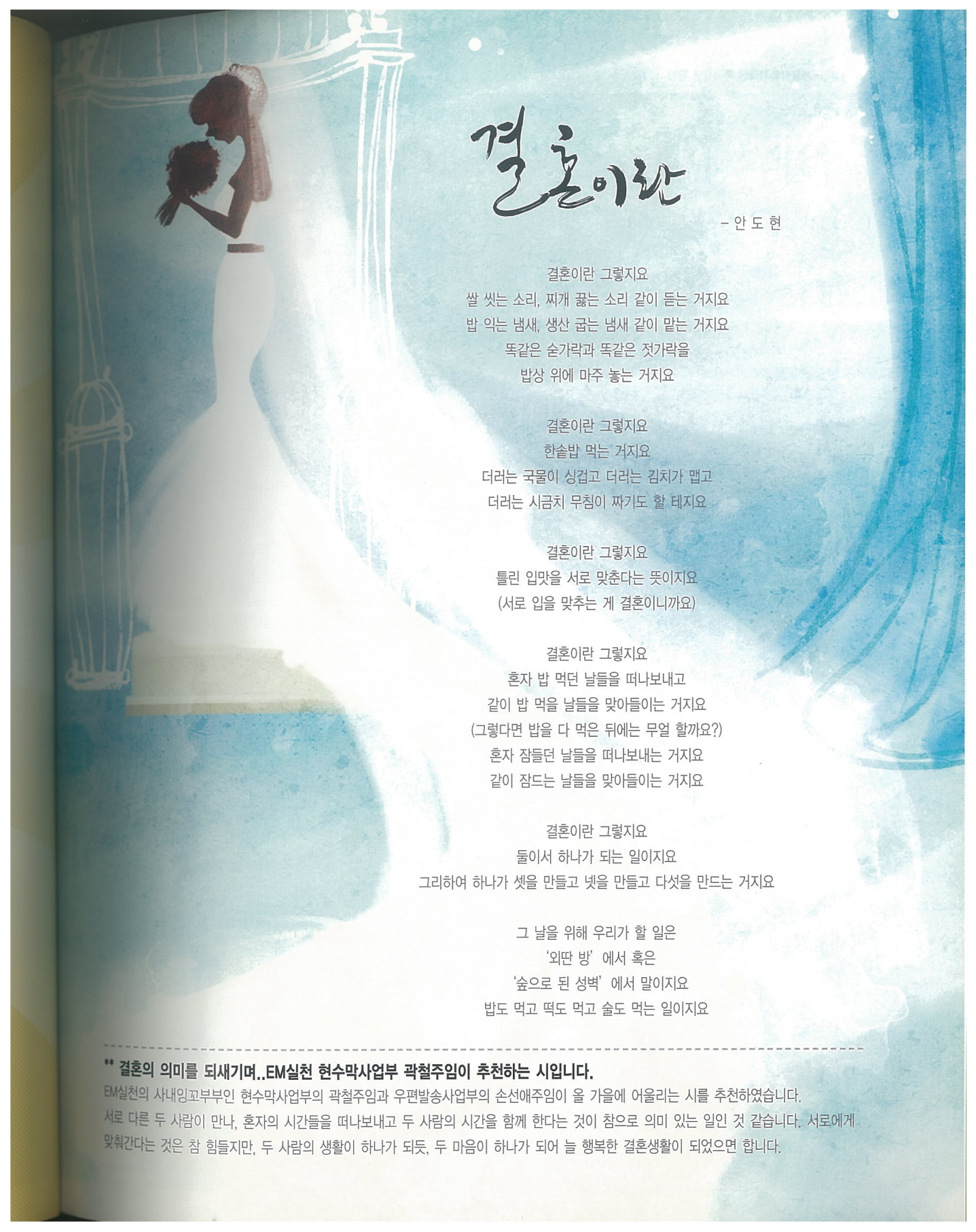
가족들이여 숨씨자랑을 하여라
EM실천 가족들이여!
언제까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만 있을 것인가!

마음껏 숨씨를 뽐내어보아라!

** 22호 숨씨자랑은 현수막사업부의 곽철님이 선정되었습니다.



* 지난호 숨씨자랑 당첨자 _ 우편발송사업부 장정임님의 시상식 한 컷



결혼이란

- 안도현

결혼이란 그렇지요

쌀 씻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같이 듣는 거지요

밥 익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같이 맡는 거지요

똑같은 손가락과 똑같은 젓가락을

밥상 위에 마주 놓는 거지요

결혼이란 그렇지요

한술밥 먹는 거지요

더러는 국물이 싱겁고 더러는 김치가 맵고

더러는 시금치 무침이 짜기도 할 테지요

결혼이란 그렇지요

틀린 입맛을 서로 맞춘다는 뜻이지요

(서로 입을 맞추는 게 결혼이니까요)

결혼이란 그렇지요

혼자 밥 먹던 날들을 떠나보내고

같이 밥 먹을 날들을 맞아들이는 거지요

(그렇다면 밥을 다 먹은 뒤에는 무얼 할까요?)

혼자 잠들던 날들을 떠나보내는 거지요

같이 잠드는 날들을 맞아들이는 거지요

결혼이란 그렇지요

둘이서 하나가 되는 일이지요

그리하여 하나가 셋을 만들고 넷을 만들고 다섯을 만드는 거지요

그 날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외딴 방'에서 혹은

'숲으로 된 성벽'에서 말이지요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술도 먹는 일이지요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며..EM실천 현수막사업부 광철주임이 추천하는 시입니다.

EM실천의 사내인고부부인 현수막사업부의 광철주임과 우편발송사업부의 손선애주임이 올 가을에 어울리는 시를 추천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혼자의 시간들을 떠나보내고 두 사람의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맞춰간다는 것은 참 힘들지만, 두 사람의 생활이 하나가 되듯,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 늘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 좌측부터 권효정(서울시복지재단 대리), 박미선(EM실천 사무국장), 김영환(EM실천 원장), 김영오(서울시복지재단 본부장, 김마윙(서울시복지재단 탐정), 김영수(서울시복지재단 탐정)

'EM실천-서울시복지재단' 자매결연 협약

여름날의 희망찬 초록 풀빛처럼 EM실천에서 아주 뜻 깊은 협약이 체결되어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8월 20일 EM실천과 서울시복지재단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공공협력본부 김영오 본부장 외 직원들이 대표로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협약을 통해 교류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호간 사회적 가치실현과 사회적경제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양 기관 및 재단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천구사회적경제연대 종사자대회

금천구는 '14년도 협동조합 주간(6.29~7.5) 및 사회적 기업 주간(7.1~7.7)을 맞이하여 7월 4일 금천체육공원 (독산4동 산18-4)에서 금천구사회적경제연대 종사자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금천구에 위치한 80여 개의 사회적경제 업체와 150여명의 대표, 종사자가 참여하는 행사였으며, EM실천 역시 김영환원장 외 종사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중심 회의체제에서

종사자까지 교류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 대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상호 이해와 친목 도모를 위한 미니올림픽 및 OX 퀴즈 등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었으며,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분야의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금천구 내 사회적경제 연대 종사자대회를 통해 기업 간 상호간의 교류, 협력이 증진될 것을 기대합니다.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



오늘의 진행자



멀리 땀 신발 멀리 날리기
비장한 표정의 박미선 사무국장과 홍경애 실습생



금천구청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박 빨리먹기대회 '누가누가 빨리 먹나?'



수박 들고 쑥스러워하는 이호진 실습생



삭삭~! 열심히 피구공 피하는 정동숙



2014. 7. 17 EM실천 상반기 평가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평가회의에는 원장님, 차인성경영지도사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약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평가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실적 및 운영방향과 더불어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경영지도사 및 직원들의 질의응답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클_운영지원팀 팀장 양현모

2014년 상반기 사업평가를 마치며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들

운영지원팀

Q. 하반기 계획이 달성가능한 목표들을 작성한 것인가?

A. 달성가능한 목표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상반기 담당자변동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고 개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Q. 운영지원팀에서는 전체적인 수익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반기에 대한 재무 추이분석도 필요

A. 생산력이 증가하여 원가절감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설명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POINT!!

실행에서 계획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운영지원실에서 제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디자인

Q. 디자인

A. 디자인

자체적

Q. 개인역

A. 전시회

개인 역

POINT

기관내 직무

비즈니스 전략

사업자

Q. 자체성

A. 올해의

대한 노

부터는

Q. 공공기

A. 시간효

구체적

POINT

추진공공기

평가 결과

평가의 필요

애플로

사업평가

최대한 애

용다.약 한

대한 직원

디자인실

Q. 디자인실 SWOT분석이 필요하다?

A. 디자인실의 SWOT분석이 조직관리에서 일부 거론되었으나 보고사항에는 누락되어 자체적인 분석을 통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역량의 사후관리?

A. 전사회나 대형서점 탐방과 동종업계방문으로 벤치마킹부분을 시행계획이며,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기획회의를 거쳐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POINT!!

기관내 직무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디자인팀 특성을 반영한 직무평가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디자인실 직무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사업지원팀

Q. 자체생산물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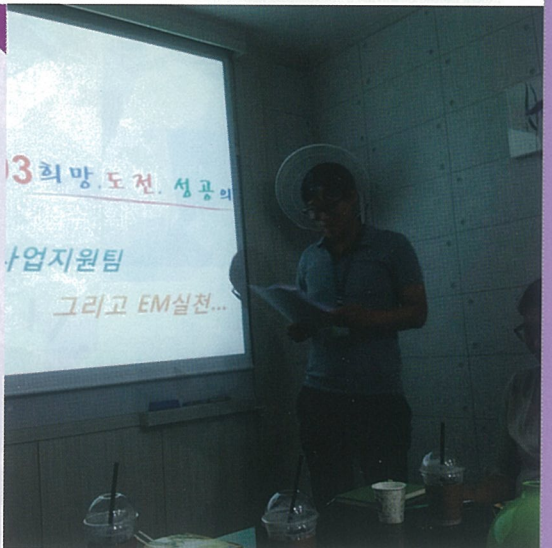
A. 올해의 경우 전체인쇄물의 65%로가 자체생산되었으나, 작년의 경우 자체생산에 대한 별도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아 비교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부터는 반영하여 비교 보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Q.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개선방안은?

A. 시간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강구해야겠으며, 고객감동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OINT!!

주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문제해소로 기존 업체의 경우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 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체개발하여 수익창출 필요 우편발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으로 보안시스템 확보가 시급



에필로그....

사업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각팀에서는 낮과 밤 관계없이 파워포인트 배경선택부터 화려한 애니메이션 기술들, 다양한 아이콘들을 섭렵하여 사업평가서 작성에 열정을 불태웠다. 약 한달간의 논의와 작성 끝에 무사히 평가회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EM실천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M실천은 2014년도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차인성지도사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주제로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글_운영지원팀 팀장 양현호



사회적기업 전문경영컨설팅 워크숍

추진배경은

첫째, 시설 유형재편(보호작업장-근로시설)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필요
둘째, 동종 업종의 사회적기업 증가로 시장경쟁 심화
셋째, 관공서 등 거래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 필요
넷째, 기관실정에 맞는 내부 운영규정 정비
다섯째,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 모델개발필요,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연계 활용방안수립을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컨설팅은 3차례 직원면담을 통해 EM실천의 개선방향,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1차 실국워크숍을 흥대 토즈에서 4시간동안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10월 2일 전직원 워크숍을 통해 컨설팅에 대한 계획수립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의내용

01

경쟁업체분석

-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시설들의 기관분석을 통한 타기관의 장·단점분석
- BM실천이 갖고 있는 강점은?

02

소셜미션(직장가치관/사명감)의 재확립이 필요

- BM실천에 입사한 이유
- BM실천은 직장외에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 소셜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가?

03

영업역량 제고 방안

- 마케팅활성화
- 현재의 생산능력은?

04

업무분장의 적정성

- 팀별,개인별 업무분장의 명확한
-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05

원활한 소통

- 직장내 소통과정의 원활한가?
- 무엇이 문제인가?

기대효과

내부
프로세스 개선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연계활용 수립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실천

경쟁력 강화와
사업재구성

〈고객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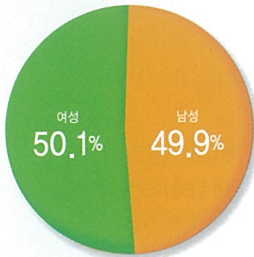
2014년 만족도조사



□ 참여대상 : EM실천 고객 □ 인원 : 147명 □ 조사기간 : 2014. 7. 16-29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단위 : %



남성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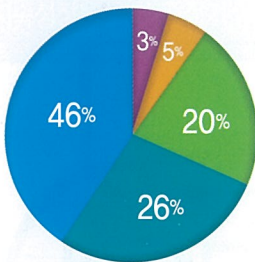
〈표1〉 설문 응답자의 성별

성별	인원	%
남성	73	49.9
여성	74	50.1
소계	147	100

전체 응답자 147명 중 남녀의 성비는 남성 73명, 여성 74명으로 5:5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2. 응답자의 직급

단위 : %



임원 및 대표
차장&부장
팀장&과장
대리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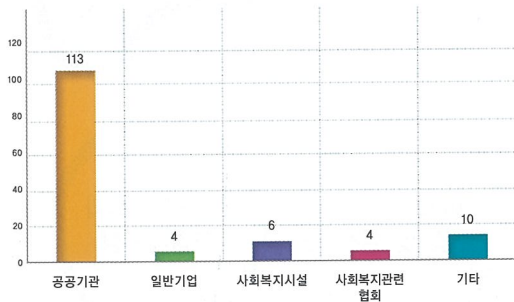
〈표2〉 설문 응답자의 직급

직급	인원	%
임원 및 대표	4	3
차장&부장	8	5
팀장&과장	30	20
대리	38	26
직원	67	46
소계	147	100

전체 응답자 1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직원, 26%는 대리, 나머지 28%는 관리자로 분포되어있다.

3. 사업체의 유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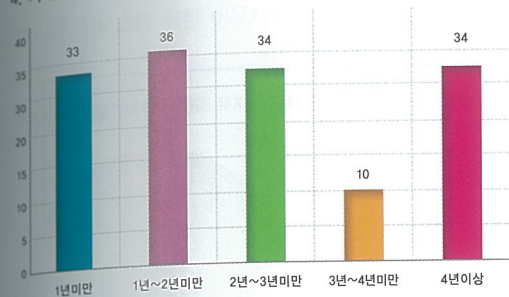
〈표3〉 사업체의 유형

유형	인원	%
공공기관	113	77
일반기업	4	3
사회복지시설	16	10
사회복지관련 협회	4	3
기타	10	7
소계	147	100

설문에 응답한 147명의 이용자 중 77%에 달하는 113명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응답자는 4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쇄물 제작 25명, 현수막과 인쇄물 제작 28명으로 집계되었다.

4. 거래기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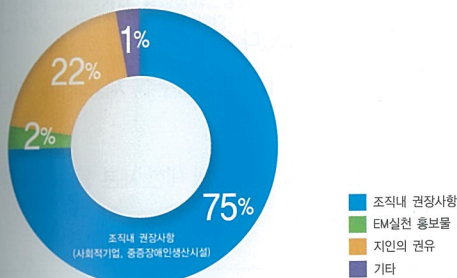
〈표4〉 거래기간

기간	인원	%
1년미만	33	22
1년~2년미만	36	24
2년~3년미만	34	23
3년~4년미만	10	7
4년이상	34	23
소계	147	100

이용자들의 거래기간에 대한 질문 중에서 3년~4년미만의 이용자 수가 1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범주에 속한 응답자들 중 6명은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디자인의 확보와 주문 시 요청사항에 대한 정확한 수정에 대한 의견을 보였다.

5. EM실천 이용경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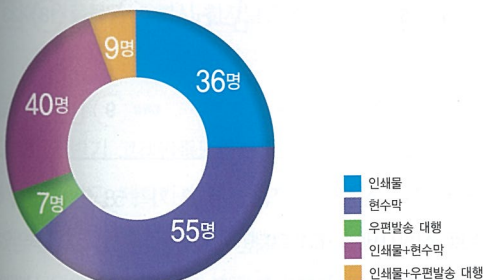
〈표5〉 EM실천 이용경로

이용경로	인원	%
조직내 권장사항	110	75
EM실천 홍보물	3	2
지인의 권유	32	22
기타	2	1
소계	147	100

EM실천을 이용하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수의 75%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권장사항을 통해 접하였고, 22%는 지인의 권유를 통해 이용경로를 알 수 있다. 홍보물을 통한 이용경로가 2%로 매우 저조하다.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이용경로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EM실천과 주거래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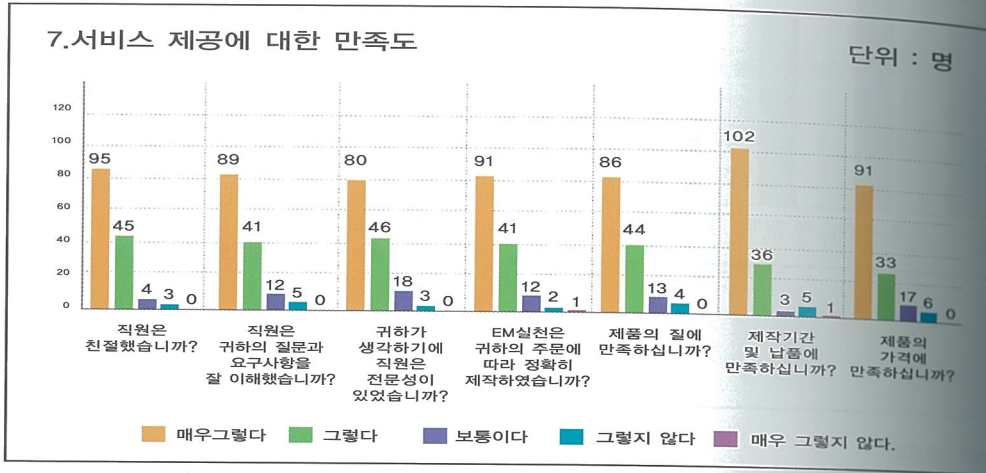
〈표6〉 EM실천과 주거래 현황

거래현황	발송자수	응답자수
인쇄물	110	36
현수막	36	55
우편발송 대행	54	7
인쇄물+현수막	-	40
인쇄물+우편발송 대행	-	9
소계	200	147

EM실천에서 주로 거래하는 사업의 종류로는 만족도 사업별 고객배정 발송량은 현수막 36명, 우편발송 54명, 인쇄/복사 110명에게 발송되어, 인쇄 69%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우편발송은 30% 응답, 현수막은 17%의 응답률을 나타내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주거래 인쇄물은 현수막이 가장 높은것으로 분석된다.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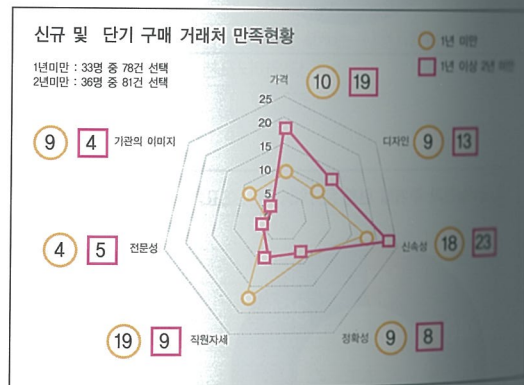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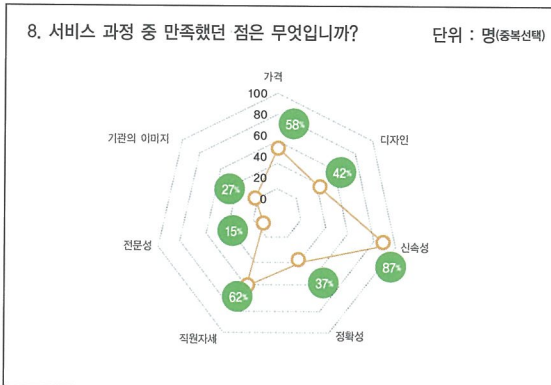
EM실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조사한 결과, 압도적인 비율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만족도가 높은 문항으로는 총 7문항중에서 4개의 문항으로 직원 친절도, 주문정확도, 제작기간 및 납품준수, 제품의 가격이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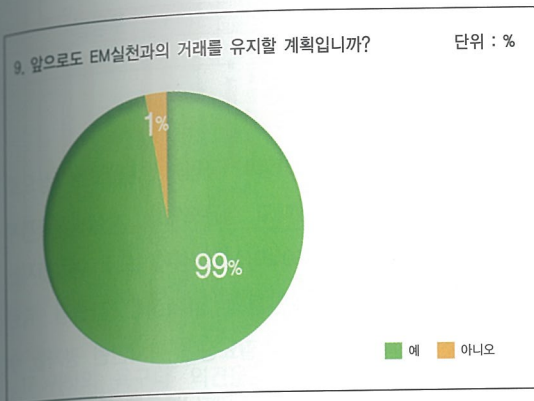
부정적인 견해를 응답한 인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 및 다양화 부족, 인쇄물의 대한 제본 등의 품질부족, 우편 발송물 품질 및 오류개선, 담당직원과의 통화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했던 점에 대해 중복선택이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하였다. 신속성 87, 직원자세 62, 가격 58, 디자인 42, 정확성 37, 기관의 이미지 27, 전문성 15로 신속성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고, 그 뒤로 직원자세와 가격, 디자인과 정확성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전문성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상담하는 직원들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여 이용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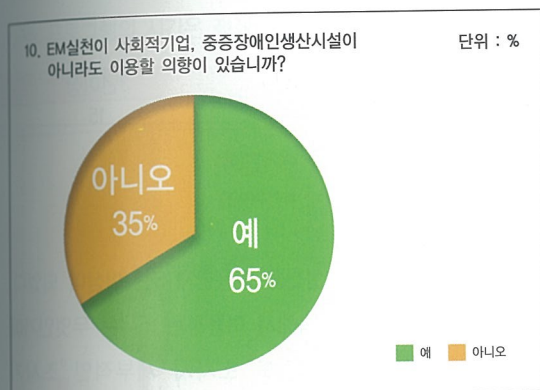
■ 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들의 제안은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향후에도 EM실천과의 거래를 유지할 계획에 전체 147명 중 146명은 그렇다, 1명은 아니라는 응답이었다.

아니오를 응답한 1명의 경우, 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다 디테일한 전문성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표10〉EM실천이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아니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응답	인원	%
예	96	65
아니오	51	35
소계	147	100

전체 응답자의 65%는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아닌 인체사업체로서의 이용의사를 보였다. 반면에 35%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아니오를 응답한 5명 중 3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고객 의견

전체 응답 중 88개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보다 전문적이며 다양한 디자인 확보에 관한 요청이 23건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완료물품 수령시 하자발견 8건, 담당자와 전화통화의 어려움 5건, 비교적 높은 제작단가 4건의 의견이 있었다.

■ 결론

2014년 상반기 고객만족도를 분석해 보면 EM실천의 강점으로는 다양한 인증(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인증, 사회적기업 인증)과 직원의 친절도, 제작기간 및 납품 준수 등으로 칭찬하여 주셨으며, 디자인 다양성 확보, 고객과의 빠른 대응, 우편발송 오류 개선 등으로 개선할 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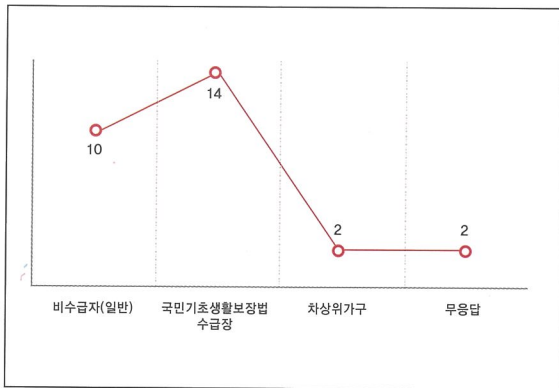
바쁘신 와중에 만족도 조사에 흔쾌히 응하여 참여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고객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완하여 좀 더 발전하는 EM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만족도조사

〈이용장애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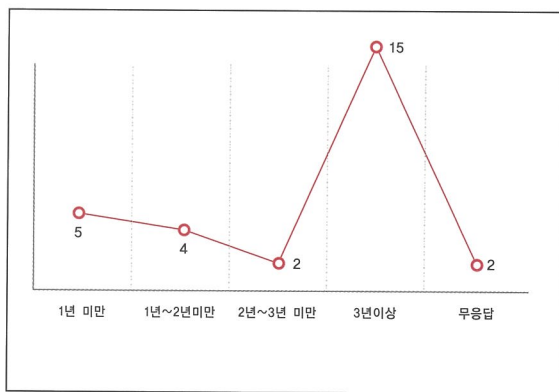
□ 참여대상 : EM실천 이용장애인 □ 인원 : 28명 □ 조사기간 : 2014. 7. 16~29

경제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가구	비수급자	무응답
	14	2	10	2



이용장애인중 50%인 14명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문되었다. 차상위계층까지 볼 때 이용장애인의 50%이상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다. 이는 이용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EM실천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평가할 수 있다.

이용기간	1년 미만	1년~2년미만	2년~3년미만	3년이상
	5	4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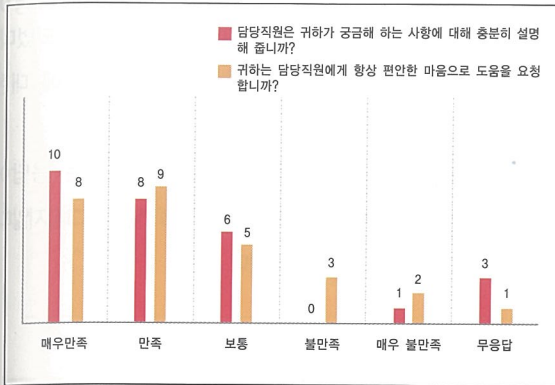
응답자 15명이 EM실천을 이용한지 3년 이상이 되었다. 이들이 EM실천을 지속해서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하반기 이용만족도 조사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다.

■ 시설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문항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 시설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까?	9	10	8	-	-
2. 화장실이 항상 청결하게 관리됩니까?	8	10	8	-	-

2014년 EM실천 환경개선 사업이후 시설 전반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 32%, 다소 그렇다 35.7%, 보통이다 28.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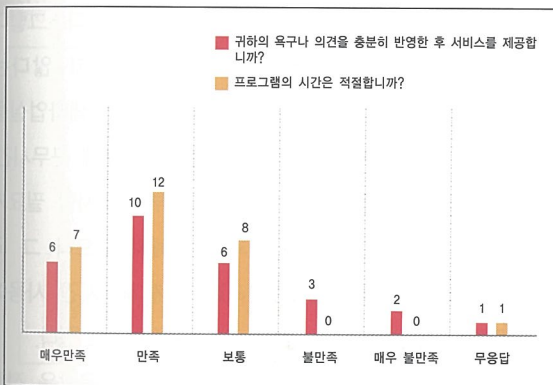
별도의 독립시설을 구축하고 있지 않고 공동생활구역인 화장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보통이다 17.9%, 다소그렇지않다 10.7%, 매우그렇지않다 7.1%로 나타났다. 도움요청이 편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17.8%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문항들과 함께 해석할 때 설명도 충분하고 귀담아 듣기는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담당직원이 유대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이용하는 서비스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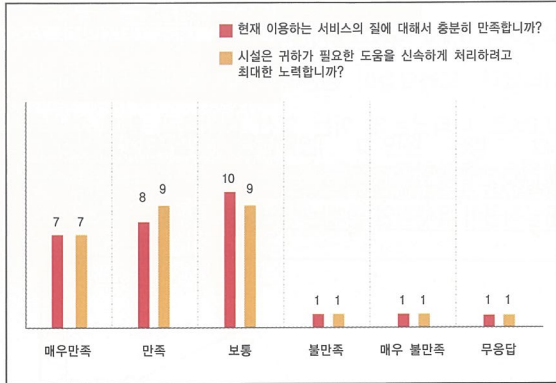
문항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7. 귀하의 욕구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6	10	6	3	2
18. 프로그램의 시간은 적절하니까?	7	12	8	-	-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여부에 대해서 매우그렇다21.4%, 다소그렇다35.7%, 보통이다21%,다소그렇지않다10.7%, 매우그렇지않다 7.1%로 나타났다. 서비스제공시 클라이언트의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에대한 동의 및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욕구조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본 만족도조사결과 보고 및 욕구조사과정을 계획하고자 한다.

평균적으로 개별프로그램제공시간이 60분정도임을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문항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9.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니까?	7	12	8	-	-
20. 시설은 귀하가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니까?	7	9	9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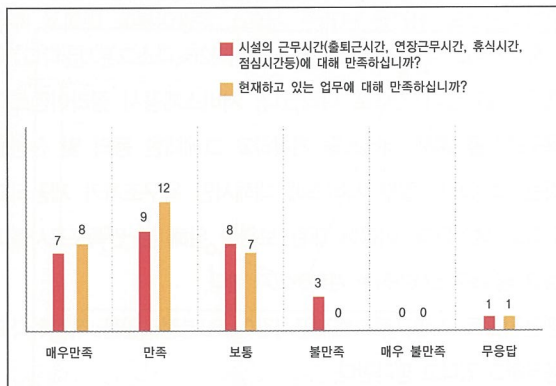


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은 전체응답자28명중 27명이 만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고 무응답자가 1명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의 질적개선에 대해 힘쓰는 담당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응답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하는가라는 응답에 매우그렇다 25%, 다소그렇다, 보통이다가 각각 32%, 다소그렇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가 각각 36%씩 나타났다.

■ 이용인의 근무환경 및 직무에 관한 만족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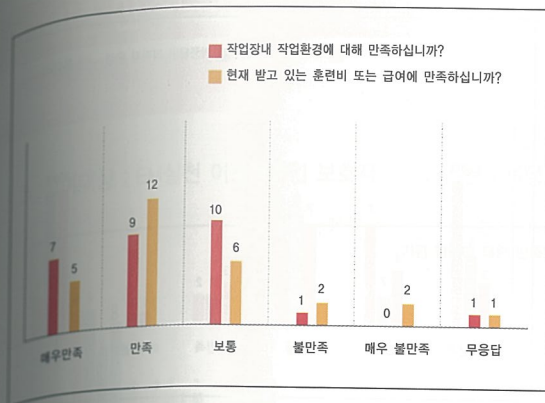
문항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이다	다소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24. 시설의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연장근무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7	9	8	3	-
25. 현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8	12	7	-	-



시설의 이용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그렇다25%, 다소그렇다 32.1%, 보통이다 28.6%로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10.7%로 나타났다. 세부사항에서 실제 인쇄사업실을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를 미비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휴식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세부만족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 휴식시간이 오전 오후에 정해져 있으나 그 외 시간에도 자율적이며 작업공간분리로 인해 휴식시간 사용에 대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담당자의 의견도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 28명중 27명이 보통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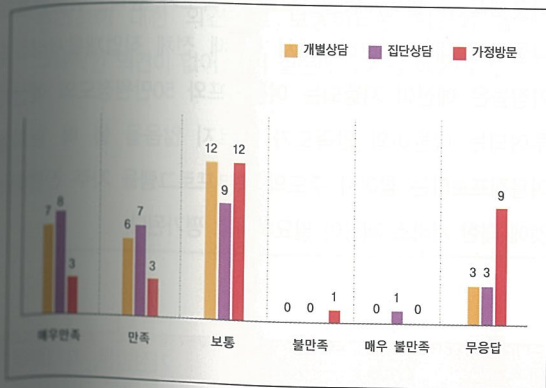
문항	매우그렇다	다소그렇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26. 작업장내 작업환경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7	9	10	1	-
27. 현재 받고 있는 훈련비 또는 급여에 만족하십니까?	5	12	6	2	2



월평균금액(2014년 상반기)이 665천원으로 30만원기준의 2배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경우 797천원으로 그 이상의 급여가 제공되고 있다. 만족스럽지 못한 이용장애인의 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현재 EM실천의 훈련비 및 급여지급수준과 일반적인 직업재활시설 기준에 대한 비교할 필요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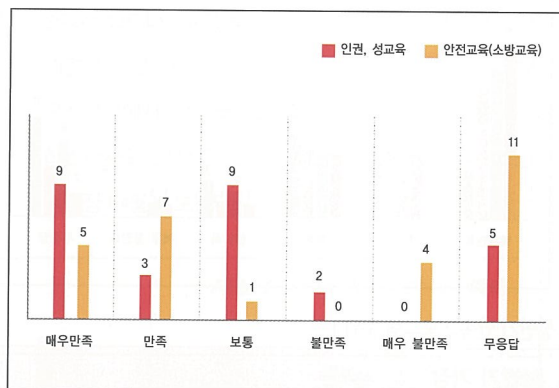
★ 2014년 상반기 직업재활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입니다.

[개인상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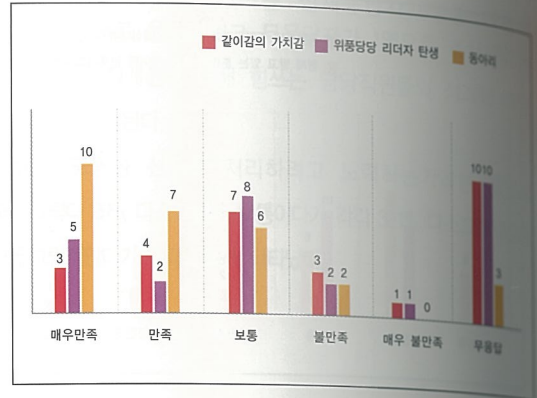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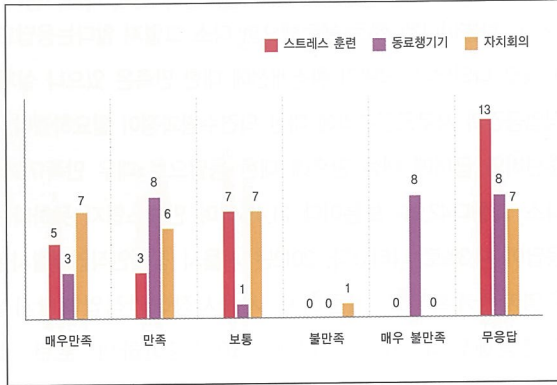
개인상담서비스에서는 집단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개별상담과 가정방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방문의 경우 신규이용자에 한해서 제공되어 무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개인적응훈련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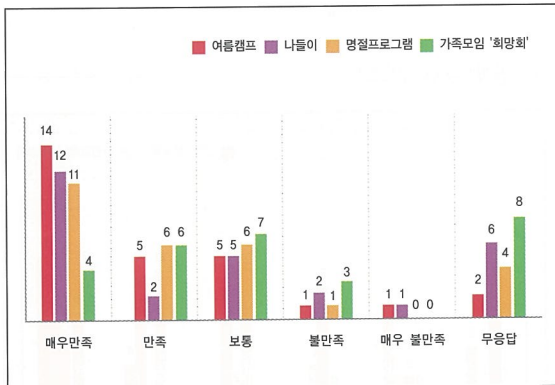
개인적응훈련으로 제공된 상반기 서비스중 인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안전교육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응답으로 평가되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응훈련서비스]



자치회의와 동아리활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동아리활동은 참여자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퇴근이후에 진행한다는 시간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볼 때 이용자 주도하의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같이감의가치감, 위풍당당, 스트레스의 경우 참여자에 대한 신청을 통해 진행되어 응답자 28명중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무응답이 높다.

[특별활동서비스]



특별활동으로 진행된 상반기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여름캠프, 나들이, 명절순으로 만족도가 높다. 여름캠프와 나들이에 대한 예산비교에서 볼 때 전체 직업재활서비스중 가장높은 예산이 지출되는 여름캠프와 5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나들이의 만족도가 다르지 않음을 볼 때 일회성 여름캠프보다는 참여자 주도의 외부프로그램을 자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상반기 만족프로그램 순위]

상반기 가장 만족하는 프로그램	여름 캠프	동아리	나들이	동료 챙기기	안전 교육	위풍당당, 인성교육	가정방문, 자치회의, 명절, 가치감
	15	10	6	4	3	2	1

상반기에 14개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이외에도 직업평가, 서비스 의뢰 등의 직간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상반기 만족도조사결과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여름캠프-동아리-나들이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 활동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프로그램 평가되었다. 앞으로는 외부활동을 통한 프로그램을 관내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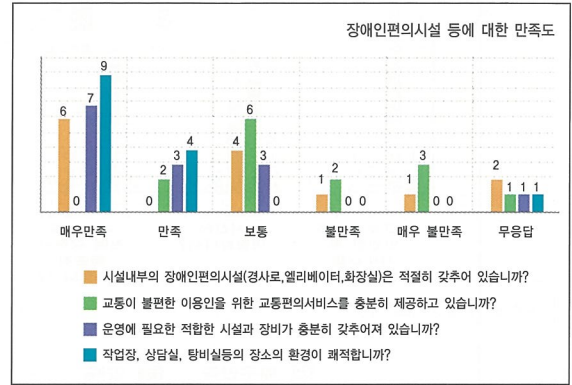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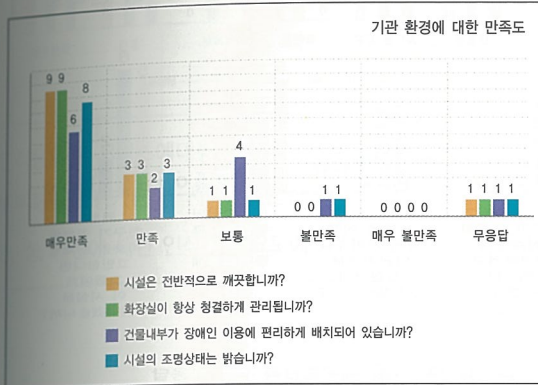
□ 상반기 직업재활프로그램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계획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

스트레스, 다른 동아리, 나들이, 개별상담, 위풍당당

2014년 만족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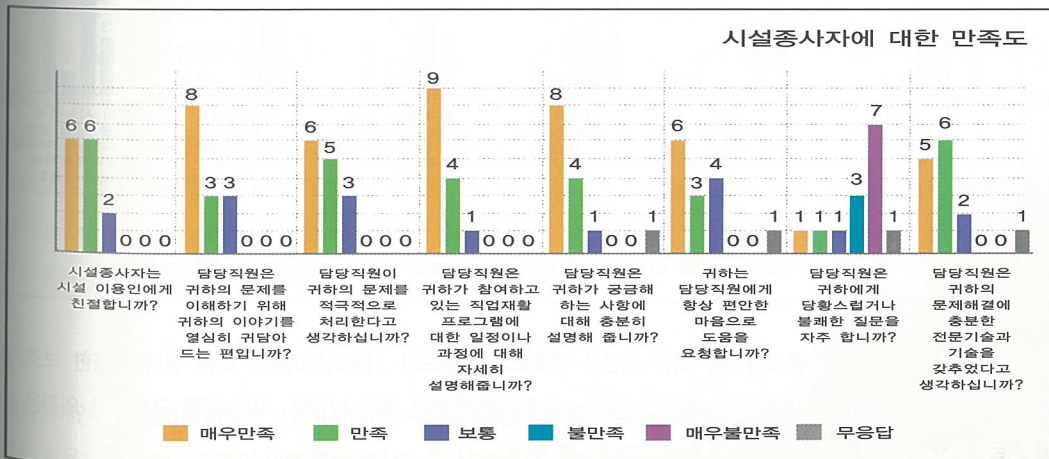
〈보호자 편〉

□ 참여대상 : EM실천 이용장애인 보호자 □ 인원 : 14명 □ 조사기간 : 2014. 7. 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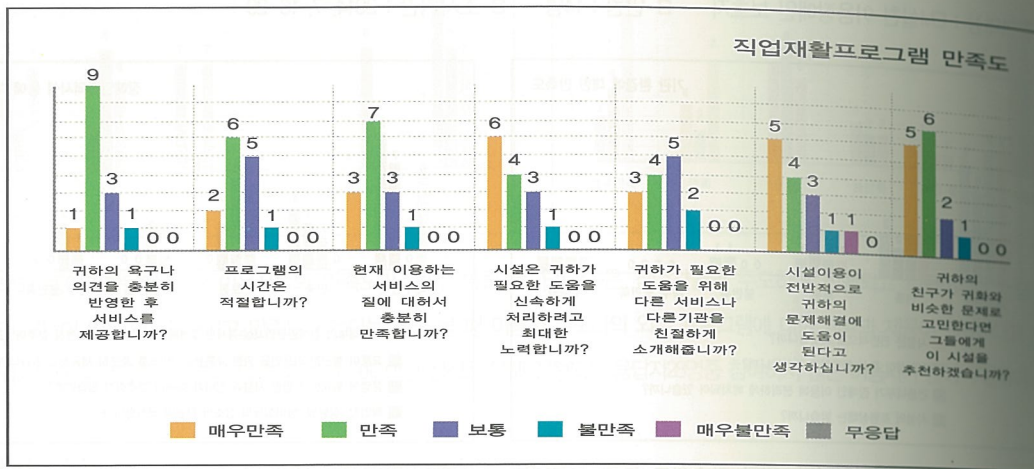


기관 환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가족회를 통해 시설내부 인테리어가 깨끗이 진행되었고 가족회 참여보호자의 경우 만족도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본다. 내부의 장애인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의견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높았는데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 차기 설문에 조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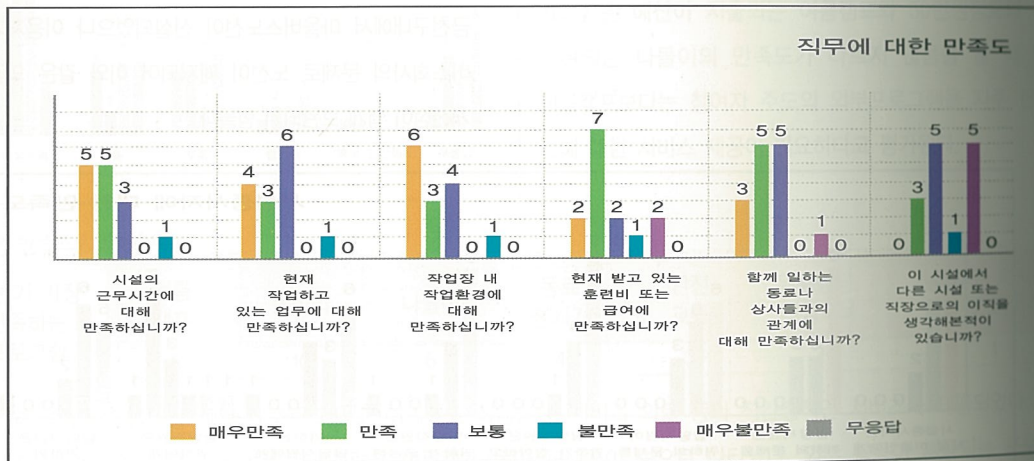
장애인편의시설, 장비 및 상담실등에 대한 의견으로 시설과 장비, 작업장, 상담실, 탕비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기관이용에 필요한 교통편의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35%로 나타나 지하철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편의를 개선하기위해 금천구내에서 마을버스노선이 신설되었으나 이용자가 없다는 버스회사의 문제로 노선이 폐지되어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한 개선점이 쉽게 보완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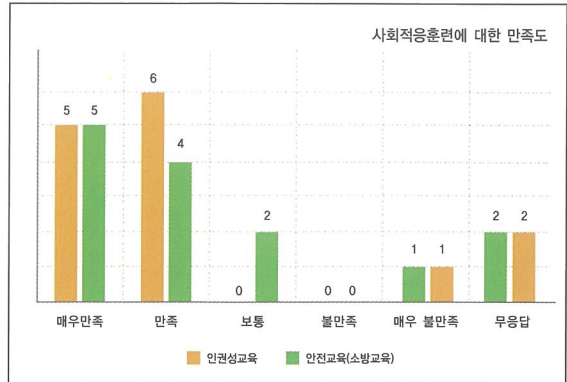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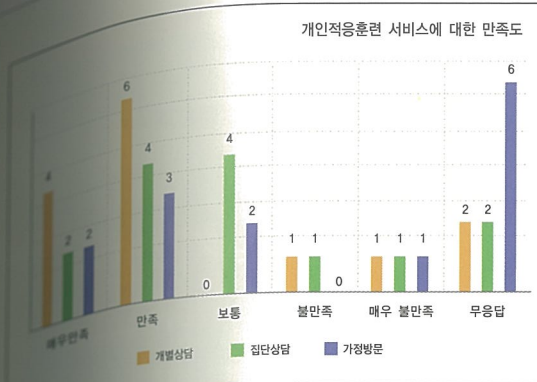
시설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는 8문항중에 담당직원이 귀하에게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질문을 자주 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가 불쾌한 질문을 자주 한다고 의견을 주어 가족 및 보호자와 의사소통하는 사례담당자들의 의사소통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구체적으로 불쾌감을 준 질문들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여 업무개선에 반영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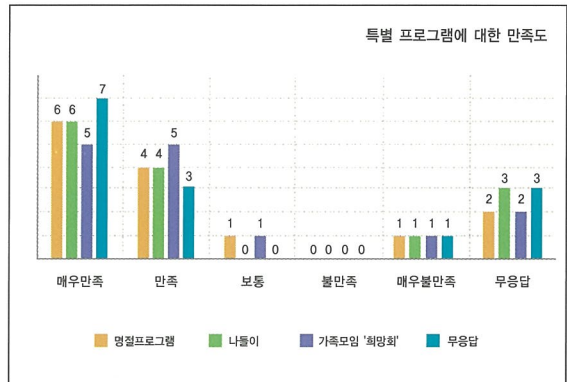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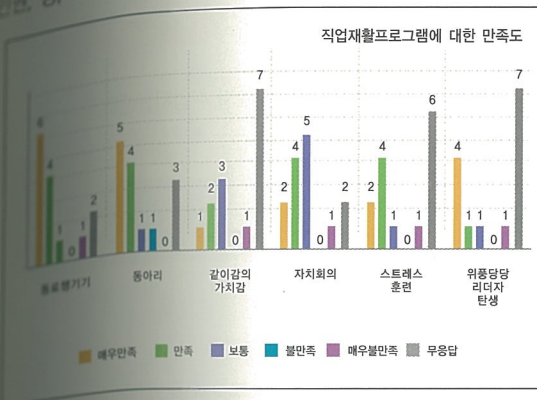
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상반기 가족모임에 안내한바 있고 이를 통해 시설내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볼 때 본 설문지의 내용 대부분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용장애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지를 아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관심정도를 재확인하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겠다.



근무시간, 업무, 환경, 급여, 동료관계에 대한 의견은 만족도가 높았으나 시설이직여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은 이원적이다. 이직을 생각해본 보호자와 그렇지 않다 보호자의 의견이 크게 나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가족모임들 통해 가족들의 구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겠다고 평가된다.



개인적응훈련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의견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나 무응답인 경우도 높다. 이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평가된다. 사회적응훈련에서 인권, 성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의견은 개인적응훈련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 최근 인권, 성, 안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에 대한 의견으로 평가된다.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에서 무응답률이 32%이다. 이는 이용장애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평가된다.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동료챙기기와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근무외시간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여부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같이감의 가치감, 스트레스 훈련, 위풍당당의 경우 일부 이용장애인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으로 전체적으로 무응답률이 높았고 무응답을 제외한 만족도는 보면 85~87%의 높은 만족도로 평가된다. 즉 같이감, 스트레스, 위풍당당등에 참여한 이용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평가했고 이는 이용장애인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제시라고 평가된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명절, 나들이, 여름캠프에 대한 의견으로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42%, 만족한다 28%, 보통이다. 3%로 전체 응답자의 73%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다. 본 서비스에 대한 무응답도 전체응답에서 17%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

30명의 이용장애인의 보호자중 46%인 14명이 제시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직업재활서비스의 방향에 대한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통해 종사자 및 사례담당자들의 서비스 제공에서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NEW프로젝트

2014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모집공고문 일부

정신질환자에게 시설 내부에서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취업을 지원할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 **시설 설치근거** : 정신보건법 제 15조(사회복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0조

○ **이용자격** : 만 20세 이상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사업장소** : 수탁 업체에서 사업장소 제안

- 서울시에서는 법인에서 제안한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입차한 후 운영 법인에게 무상 사용허가 (월 임차료는 사업장소를 고려하여 2년 이내 지원 가능)

- 수도권(서울, 경기도 포함) 지역 설치 가능하나, 시설 이용자가 도심에서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대규모 기계 설비가 필요한 품목에 한함)

○ 서울시에서 운영법인에게 장비구입비, 임차료, 운영비 보조

○ 외부 취업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근로기회를 제공

○ 외부취업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직업훈련 등 민간 취업지원

○ 2개소 설치, 시설당 20명 이상 근로, 시설 내에 생산팀과 취업지원팀 구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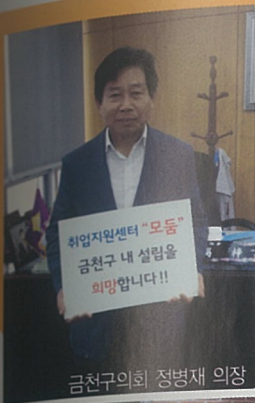
- 생 산 팀 : 이용 인원의 70% 이상 근로

· 최저 임금의 40% 이상 지급, 2년 후부터 최저 임금의 60% 이상 지급

· 1일 6시간 이상, 주 5일 근무

- 취업지원팀 : 이용 인원의 30% 이내

·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외부 취업 활동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



금천구청 차성수 구청장



금천구의회 강태섭 부의장



금천구사회복지시설연합회 조영표 회장



금천구청 복지정책팀 조영준 팀장



EM실천 이윤장애인 조용철



금천구립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장애인부모회 위성호 대표

* 사진 속 모든 분들이 위탁심사를 위해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모듬”에 사랑과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금천구청 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금천구립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분들, 금천구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분들, 금천구장애인부모회 회장, 금천구청 복지정책팀 팀장 조영준, 금천구내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용철, 금천구내 사회복지사 박수현, 금천구사회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조영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내 많은 분들의 관심과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힘쓸 것이며 특히 눈부신 금천의 복지 발전을 위해 금천구내 사업유치를 앞으로도 쭉~욱 도전하고자 합니다.



2014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3분기 소식



직원해외연수

46
+
47

언제 : 7월 4일~12일

어디 : 독일 베델의집, 이저론 디아코니등

목적 : 이번 연수는 복지선진국 독일의 정신장애인 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꿈꿔야 할 공동체 모형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구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베델의 집(Bethel) 견학

우리가 방문한 독일 최대 복지타운 '베델'은 중북부 빌레펠트에 위치한 마을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간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공동체이며, 마을 전체가 거대한 복지타운을 조성하고 있어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 단연 최고라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마을인 베델의 집을 둘러보면서 공동체 이념과 철학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한울이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 목적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저론 디아코니((Iserlohn diakonie) 견학

'디아코니' 는 봉사과 헌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디아코니아' 의 독일어입니다. 개신교 사회봉사를 의미하는 말로 통용되는 디아코니는 '복지국가' 독일을 떠받치는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디아코니사업단에 속하는 기관은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저론에 위치한 디아코니의 여러 기관 중 우리가 방문한 보호작업장은 중소기업의 규모와 수준으로, 직업을 통한 자기개발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 정도에 맞는 근무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거시설 및 주간재활시설, 상담소 등을 둘러보며 이 모든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지기반이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들이 격리와 차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의 일원으로 동화되어 살 수 있는 환경여건이 하루라도 빨리 조성되길 바라며 그 선두에서 한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2014년 하반기 정기이사회

연제 : 8월 29일(금) 오후 4시

어디서 :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카페온다)

누가 : 대표이사 이용표, 이사 노명근, 이사 조흥식, 이사 장혜경, 이사 박경수, 이사 황운성, 이사 강상경 외 20개소 시설장

내용 : 상반기 사업결과 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이용표 대표이사와 조흥식·장혜경·박경수 이사의 연임과 함께 일신상의 사유로 이사직을 사임하는 노명근 이사님의 고문추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소식

이·미용 프로그램

일 자 : 매월 첫째주 화요일

내 용 : 개인위생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근로장애인의
머리카락을 정리 정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장 소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내

협 조 : 자원봉사자(미용실 운영)



〈이·미용 프로그램〉

소방교육 프로그램

일 자 : 2014.08.12.(화)

내 용 : 안전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
상황 또는 화재발생시 대피하는 요령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장 소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협 조 : 구로소방서



〈소방교육 프로그램〉

나들이

일 자 : 2014. 08. 26(화)

내 용 : 나들이를 통하여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
하는 시간을 마련

장 소 : 신흥레저타운

협 조 : (사)정다우리



〈나들이〉

작업 활동

볼 트 : 조립하기(수동, 전통)

쇼핑백 : 쇼핑백 접기, 끈 묶기 등



〈볼트 조립〉



〈쇼핑백임가공작업〉

신규 훈련생 모집

1. 근무조건

- 근무시간 : 09:30 ~ 17:00, 월 ~ 금
- 급 여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2. 모집기간

- 총원시 까지(결원 발생 등 사유가 발생시)

3.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 내방 (접수 및 면접 실시)
- 접 수 처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 문의사항 : 02)897-9747

4.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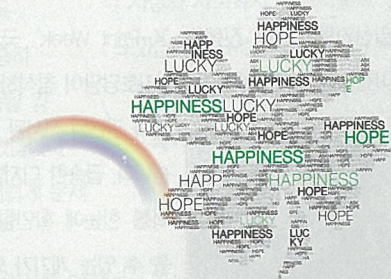
- 신청자 조건
 - (1) 금천구내 등록 장애인
 - (2) 금천구내 등록 정신적 장애인(정신, 지적 장애)
 - (3) 금천구내 등록 정신적 장애인중 취약계층
 - (4) 근로능기가 명확한 장애인
 - (5) 보호자의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

자원봉사자 모집

1. **모집분야** : 근로장애인 작업 활동보조 외 다양한 재능기부 봉사
2. **활동장소**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한내복지관 2층)
3. **활동시간** : 월 ~ 금, 09:30 ~ 18:00 (시간 및 일정 조정 가능)
4. **활동내용** : 단순 임가공업(쇼핑백 접기, 매듭 묶기, 나사조립)
5. **혜택** : 봉사시간 인정(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행 - VMS)
6. **문의사항** : 02)897-9747

후원금 및 후원물품 희망합니다.

1. 후원금은 훈련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 등 활동비용으로 쓰입니다.
2. 후원물품은 작업활동용품, 피복, 생활용품 등 훈련장애인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물품들을 바랍니다.





명진C&P 이능형 대표이사 내방

/ 2014. 7. 8

2014년 EM실천과 새로운 파트너 명진 C&P 이능형 대표이사님과 주봉구 제작과 장님이 EM실천에 방문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돈독한 파트너십을 기대해 봅니다.



'K-Print Week' 국제 인쇄기자재 전시회

/ 2014. 8. 28

일산킨텍스에서 진행된 'K-Print Week' 국제 인쇄기자재 전시회에 이진숙실장, 권장윤팀장, 김기호담당이 참석하여 인쇄, 현수막, 우편발송사



업과 관련된 전시된 기자재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속한 디지털화를 보이는 인쇄업계의 시장변화를 한눈에 확인함과 동시에 인쇄업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본 기관의 기존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쇄시장변화에 대해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4년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지도점검

/ 2014. 7. 8

7월 8일 2014년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지도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었으나 나진호주무관께서 관내 방문하여 시설환경개선을 한 모습을 보고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 아쉽게도 그동안 EM실천을 담당하였던 나진호주무관님께서 주차관리과로 이직하셨으며, 신성우주무관님께서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구로구장애인일자리박람회

/ 2014. 7. 15

2014년 상반기 구로구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EM실천에서는 허재혁, 조하연, 임영기님이 참가하였습니다.

구로구장애인일자리박람회 참여를 위해 사전 채용기업 정보 탐색과 더불어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박람회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박람회 당일 다양한 채용기업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금천구청 2014년 공공구매 설명회

/ 2014. 8. 22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금천구청 부서별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구매를 독려하는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독려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국복지재단 DCMC교육

2014. 8. 20/21

한국복지재단의 디지털 컬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에 맞게 개발한 한국복지재단의 DCMC(Digital Color Management) 교육은 고객들의 Color management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실 박경아대리와 복사실 박동진주임이 디지털 컬러 출력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DCMC 교육과정을 마치며...

복사실 박동진주임

저는 지난 8월 20일에서 8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DCMC(Digital Color Management Certification) 교육 과정을 수료 받았습니다. 주치는 제록스였지만 전반적인 Digital Color에 관한 내용을 기초부터 전문적인 과정까지 요약해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크게 기대는 안하고 갔었지만, 컬러복사기를 만지려 애쓰며 첫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은 종일 강의, 둘째 날은 강의와 오후에 간단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강의 받은 책을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어렵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와 얘기들이 많았고, 이런 식에 교육은 처음이라 별다른 메모도 못한 채 듣는 거에 집중하려 애쓰며 첫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은 종일 강의, 둘째 날은 강의와 오후에 간단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강의 받은 책을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어렵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와 얘기들이 많았고, 이런 식에 교육은 처음이라 별다른 메모도 못한 채 듣는 거에 집중하려 애쓰며 첫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은 종일 강의, 둘째 날은 강의와 오후에 간단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강의 받은 책을 보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어렵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참석

/ 2014. 9. 19

15년부터 운영, 실시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사용자 교육에 사업지원팀 박수현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관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시범운영 안내 및 시스템 주요



기능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EM실천은 22일 전 직원이 모여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내부교육 실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통해 이에 대한 구매실적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생산품의 홍보효과 등이 기대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등반대회

/ 2014. 9. 20



매년 개최되는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올해는 서대문 안산에서 진행되었으며, 서울 각 시설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EM실천은 사회복지 종사자와 더불어 등산동아리 '올라' 이용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는 등반으로 모두들 숨이 턱 막히고 무릎은 아팠지만, 안산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푸르른 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돌아왔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한 희망실천

자원봉사자 모집

EM실천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용장애인, 종사자와 함께 소통하실 자원봉사 가족여러분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거나 혹은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원봉사참여를 기다립니다.

52
+
53

1. 소통 분야(모집분야)

- 소통① 교육 분야(한자, 한글, 스포츠, 음악, 미술 등)
- 소통② 직업 분야(컴퓨터교육, 직무지도 등)
- 소통③ 여가 분야(사진촬영, 볼링, 등산 등)
- 소통④ 함께 일하며 이용장애인과 동행 해 주실 분

2. 활동시간 : 평일 9:00~18:00(시간 및 일정 조정 가능)

3. 자원봉사활동인증서 발행(VMS, 1365)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연락처 : 02-875-9744 / 070-7825-8945

(사업지원팀 대리 박수현)

홈페이지 : www.em21c.com

E-Mail : em21c@hanmail.net

후원자 모집

■ 직접후원

후원계좌 (예금주 : EM실천)

하나은행 577-910004-99104

농협 301-0104-7345-41



Thank you...

■ 3분기 자원봉사자 명단

[VMS]

- 7/2 국민은행 가산테크노지점 이병헌지점장님 외 9명
- 7/9 이효정
- 8/5 김다현, 김영주, 신윤주
- 8/6 최현영, 심주희, 김경현, 정해인

[1365시스템]

- 7/2~4 유용진
- 9/4 이정아, 박승훈, 신만철
- 9/5 박승훈

■ 물품후원

금천구사회복지기관연합회 후원 음료

■ 정기후원

이병헌, 한지영, 이효상, 김정희, 정준호

■ 비정기후원

하나은행 신목동지점



능 감사합니다

Thank you~!

3분기동안 EM실천의 인쇄/복사, 현수막, 우편발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문득 왔다가 짧게 끝나버려 더더욱 아쉬운 계절.. 가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EM실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M실천의 또 다른 후원자이신 인쇄/복사, 현수막, 우편발송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M실천에 대한 고객 분들의 관심과 사랑은 증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적 안정 및 사회통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M실천의 관심을 통해 보이지 않는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고객여러분들의 주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Thank you~!

우편발송사업 고객명단

강병선	강상길	권금숙
김은하	김이호	김인아
김재훈	김정연	김지원
김현주	문신희	박나래
박선희	박수진	박정열
양순녀	양원중	우정현
유상균	윤성혜	윤영수
이도형	이문정	이삼희
이윤경	임세환	임천경
장민구	장재희	정준기
정현철	조상구	조종범
최상남	최선미	홍은정
황문실	황정호	

인쇄/복사 고객명단

강희영	박지원	이영경
공정수	박혜정	이영주
구경민	배은정	이유미
권수민	백승용	이재숙
금소현	서동욱	이정호
김건우	서민주	이종남
김계정	이보ومی	이지선
김규석	손은진	이지혜
김기민	신기숙	이한나

김남희	신동훈	이혜원
김다운	신동희	임상옥
김대성	신미영	임원대
김동욱	심소의	임태상
김미경	심화윤	장광덕
김민정	안지만	장영태
김서윤	양정아	장태철
김선경	오동록	전병남
김선영	오최근	전선영
김선희	우성주	전임새
김유진	원동섭	정명곤
김은옥	원재식	정연희
김정은	유동근	정현석
김주형	유란희	정혜원
김지현	유미진	정희진
김지훈	유세진	조민진
김현경	유의경	조상미
김혜미	유진선	조성익
김희술	유춘우	조성호
김희영	유충훈	조윤준
나종민	유현진	조혜윤
나진호	윤민현	조혜정
남아란	이강호	진정식
노광석	이겨레	최대경

문익주	김계정	최병국
박래현	이금옥	최현진
박미정	이동석	추건호
박상민	이동현	탁은정
박아름	이보미	하성진
박애경	이보옥	하영제
박 용	이삼희	한기철
박원규	이선종	한세임
박윤숙	이선희	허은희
박정심	이수인	홍민영
박정효	이슬비	황보옥

현수막 고객명단

김세라	손은진	최서윤
장영수	이대근	김정은
이주엽	김은주	김은영
박원규	오형탁	박상식
차지현	정선숙	이동원
차우승	임정아	김창용
박상중	이보옥	신동훈
유상옥	홍주희	양윤서
권아름	박찬영	최윤호
오수택	강해림	김정현
박재상	박재상	장은희
홍윤기	김광일	맹자혜

정상훈	이강숙	맹자혜
김빛나	임윤경	김영미
박순희	박인숙	김복녀
임보영	윤정희	전해령
한하식	한일규	김도희
최보름	변상우	김현경
전양래	김종민	이인애
원동철	이원영	기현균
안내영	김선조	김동희
고희진	이석일	김성진
이석일	임태상	허지연
고건일	김미경	나은경
한아름	유현진	이한나
임원대	전재하	유수정
장영태	김종윤	장선우
최경아	정선숙	정선숙
최경아	최가람	신동희
김보람	이채영	임동현
최현정	조옥현	장혁주
범원택	최진경	김미란
이다인	신미영	한세임
윤희미	이가는	김광돈
신지혜	김희정	심화윤
박상을	장지영	장행유

“변화와 도약의”
EM실천
EmpowermentSociety